

창간기념

특별대담

L. 랭카스터 교수

정병조 교수

# “한국불교 전통살리면 인류의 희망일 수 있어”

## 선교융합 정신은 현대문제 풀어나갈 해답 서구식 사고에 염증...UCLA서만 2백명 불교 연구

▲정병조=랭카스터 교수는 미국에서 한국불교학의 붐을 조성시킨 장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의 불교 이해와 그 전망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사회에서의 불교관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랭카스터=한미교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학술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불교신앙을 따르는 이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출가신자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재가신자들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정병조=왜 서구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어떤 계층이 주로 불교를 신봉한다고 보십니까?

### 대학중심으로 불교전파

▲랭카스터=서구불교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나 유럽쪽으로 이주한 이민 세대에 의한 불교전파입니다. 특히 동양계와 타이완계 및 일본 한국인들의 전통종교인 불교가 자연히 서구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지요. 두 번째는 자생적 불교라고 할까요. 주로 할리우드의 사고에 염증을 느낀 지식인들에 의해 선수형이 선호되었습니다. 이를 계층은 주로 재가 신자였고 지금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국이민세대의 2세대 3세대는 거의 서양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80% 정도가 서양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더군요. 서양인인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양의 불교신자들은 대부분 교학적의 중산 계층들입니다. 아무래도 대학교를 중심으로 불교사상이 전파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병조=교수님은 어떤 인연으로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랭카스터=1954년으로 기억합니다. 대학원에서 동양학, 특히 불교학쪽으로 연구해 볼 결심을 굳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불교쪽에 관심

세계의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한국불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왜 물질문명의 첨단을 지달는 서구에서 불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 미국에서 한국불교학 연구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최근 세계적 성모 고려대장경 전산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랭카스터교수(미국 버클리대·물리학)를 지난 2일 동국대에서 정병조교수(동국대)가 만났다.

이 있었습니다. 문헌섭렵을 해나가던 중, 한국불교에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정취가 엿보였습니다.

그후 1970년에 처음 한국을 찾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헌으로 본 한국불교와 너무 다른 것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 그때까지 버클리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한국 불교관계 서적은 단 2권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선교사가 쓴 것이어서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적어도 문헌상으로 한국불교는 세계속에 '없었던' 셈이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본 한국불교는 그 다양한 신행체계, 독특한 선종, 열화같은 신심 등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불교 연구를 시작했고 앞으로 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정병조=아직도 버클리대학에 한국불교책이 2권뿐인가요?

▲랭카스터=아닙니다. 이전 제법 많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많지 않지만.....

▲정병조=한국불교의 전통은 선입니다. 물론 선교융합적 전통이 강하지만 서양에서는 주로 일본의 선이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일본불교와 한국불교의 특징을 비교해 주신다면?

### 본질변한 일본불교

▲랭카스터=일반적인 말씀일런지 몰라도 일본불교는 종파주의적 색채가 강합니다. 예컨대 조종종 일제 종 정토종 등으로 분화되었을 뿐 아니라 교유와 선도와 많이 융합된, 이를테면 '법정의 불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승적 특징이 있습니다. 정교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교융합적이면서도 초종파적 특성을 지닙니다. 또 한국불교는 교유의 전통성이 온존하고 있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서양종교 전통이 교유의 문화를 말살시켜온 데 반해 평화적이며 조화로운 태도이지요. 그래서 한국불교는 인류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도덕성의 문제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제 문제를 새롭게 풀어갈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한국불교의 전통이 잘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국불교는 교유의 전통성이 온존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양종교 전통이 교유의 문화를 말살시켜온데 반해 평화적이며 조화로운 태도이지요. 그래서 한국불교는 인류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도덕성의 문제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제 문제를 새롭게 풀어갈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한국불교의 전통이 잘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병조=아마 우리는 스스로의 장점을 잊고 외부지향적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불교에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가불자들에게서 종교나 조연을 주실 일은 없는

지요?

▲랭카스터=이방인인 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또 그 반면에 구체적인 연구도 없지요. 다만 정교수님도 참석하셨던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국제회의(1991, 미국 버클리대학 주최 한국종교세미나)와 같은 성격으로 내년에 다시 한번 국제회의를 열 생각입니다. 그때 한국 재가불자들의 의식상향에 관한 제 논문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이번에 내한하신 목적이 고려대장경의 전산화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장경 전산화 작업의 의의와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랭카스터=지금 우리는 전산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경의 전산화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미 스리랑카와 타이완의 파알리(Pali)어 남전대장경은 완



랭카스터교수(미국버클리대)는 정병조교수(동국대·사진 오른쪽)와의 대담에서 “한국불교에 현대사회의 제 문제를 풀어갈 원리가 담겨있다”며 선교 융합적 전통을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 장경연구소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실을 보리라 확신합니다.

▲정병조=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 대장경 전산화는 '화두'

▲랭카스터=역시 입력과 자금문 제입니다.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수작업이 불가피한데, 고도의 전문성을 띤 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타이완 대장경 전산화 과정을 말씀드리면, 80명 정도의 인력이 약 3년 동안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경비도 만만치 않지요.

또 한글문자는 한국 일본 중국어 표기법이 달라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약자를 많이 쓰지만 한국은 거의 고자(古字)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를 세 나라간의 공통된 한자사용이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불자들이 부디 이 대장경 전산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심양민의 협력이 있으셔야 할 줄 압니다.

▲정병조=대장경 전산화는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이 대박발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한 국불교에 대해서 매우 희망적인 발

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무척 고무적이고 또 시사되는 바도 많습니다. 재가 부계에는 여전히 한국 불교에 대한 묘한 알레르기들 느끼는 분위기도 상존하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불교가 보다 성장하려면 역시 튼튼한 학술적 기반과 성실한 신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뜻에서 랭카스터교수 같은 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앞으로 도 더욱 깊은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는 한국학생들이 많습니까?

▲랭카스터=이미 로버트 버스웰(UCLA 교수) 박생(뉴욕주립대 교수) 이주형(서울대 교수)씨 등을 교수로 활약하고 있고, 또 지금 박사과정에서인 3명의 한국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를 전공코드로 채택한 대학은 버클리(Berkeley) 스톤리 부루크(Stony Brook) 컬럼비아(Columbia) 하버드(Harvard) 하와이(Hawaii)대학 등 거의 모든 유명대학이 망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은 편입니다. U.C.L.A. 같은 곳에는 2백명이 넘는 미국학생들이 한국불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육식을 안 하시던데 육

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랭카스터=부처님 제자라면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겠지요. 건강상 문제도 있구요. 가끔씩이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정병조=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불교의 특성은 역시 그 수행통일적 자세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정한 수행과

### 의식수준 국제화 돼야

생활불교의 정착이아말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전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은 여전히 미흡하였습니다. 한국불교를 여전히 중국의 이류로 보려는 편견이 불식되려면 우리의 의식수준 또한 국제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눈길을 세계로 돌려 한국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다원종교의 현실 속에서 우리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결코 교세의 확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표방하는 것이 진리에 얼마나 가까우나 하는 점이 그 결정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보살이 되려는 사원을 품을 때 불교의 발전은 기약된다고 확신합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p>總長 閔丙天</p> <p>理事長 吳綠園</p> <p>學校法人東國學園</p> <p>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p> <p>☎ 9225-1550 / 7-9</p>	<p>중앙승가대학</p> <p>학장 임송산</p> <p>교수 및 교직원 일동</p> <p>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p> <p>☎ 9225-1550 / 7-9</p>	<p>國民銀行</p> <p>安城支店</p> <p>支店長 申時均</p> <p>☎ (0334) 74-2011~4番</p>	<p>線佛敎美術研究院</p> <p>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원동 23-1103</p> <p>☎ 911-2352</p> <p>중앙승가대학부설 불교미술연구소</p> <p>원장 혜남</p> <p>대중일동</p> <p>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p> <p>☎ 929-9991</p>
---	---	---	---